“행복한 삶 궁금하다면 이 App을 써봐요”

(사)행복한마을, 공동체 콘텐츠 담은 공공생활 앱 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삶의 기본 요소 의(衣)·식(食)·주(住).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삶의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최근 불교 공동체가 불자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자 명상과 채식, 공동체 주거 등을 주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이사장 은산)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를 바른 명상(意), 바르게 먹기(食), 대중 공동체(住), 나누는 삶(共)으로 정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의식주공(意食住共) 생활 애플리케이션 공공생활’(이하 공공생활)을 개발했다.

공공생활은 (사)행복한마을의 대표 브랜드다. (사)행복한마을은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로서 행복으로 이끄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며 대중이 함께 성장하는 삶을 지향한다. 공공생활은 (사)행복한마을의 공동체 삶을 보여주며 안내하는 앱이다.

공공생활 앱에는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의(意)·식(食)·주(住)·공(共) 총 4가지로 나뉜다.

카테고리 ‘의(意)’는 행복한마을 나랑명상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명상 활동을 공유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무경계 스터디수업 △일반인명상 △청

의식주공(意食住共) 주제 나눠
명상·채식 등 불교문화 담아
공동체생활 속 성장기 비롯해
체험자 모집해 체험단 운영도

소년명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명상 △먹기명상 △집중명상(더깨달음) 등이 있다. 또 (사)행복한마을 공동체는 하루 7분 명상을 오후 2시마다 진행한다. 공공생활은 알림 프로그램을 제공해 하루 일과 중 7분 명상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알림기능과 함께 공공생활은 명상에 도움이 되는 글귀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생활앱 초기화면. 공공생활의 의미부터 각종 불교콘텐츠 등을 사용자에게 전한다.


공공생활앱은 ‘의식주공(意食住共)’을 주제로 명상과 채식 등 불교문화를 담았다. 행복한마을 이사장 은산 스님을 비롯해 공동체생활을 하는 대중이 스마트기기로 앱을 소개하고 있다.

카테고리 ‘식(食)’은 발우공양을 기본 정신으로 제공하는 채식음식 서비스 창구다. (사)행복한마을은 전문 채식음식점인 베지나랑을 거창과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베지나랑에서 제공하는 채식음식을 공공생활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반찬 쇼핑몰과는 달리 발우공양 정신을 담아 음식을 통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구성했다. 음식은 조리된 것을 배송하며, 무오신채 사찰 요리지만 일반인이 접해도 거부감이 없도록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모든 음식은 하루 한 끼 양만 제공해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행복한마을 이사장 은산 스님은 “세상에 여러 반찬 가게는 많지만 먹는 것조차도 깊이 있는 삶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깊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주(住)’는 공동체 주거 공간을 엿볼 수 있다. (사)행복한마을은 현재 거창과 부산 등에서 주거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현재 거창에는 공동체 마을이 조성 중이며 부산에는 미혼자들의 주거 공간이 새롭게 준비 중이다. 카테고리 주(住)에서는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의 장점을 알 수 있고 대중생활을 통한 성장기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행복한마을은 공동체 체험 공간을 소개하고 체험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공(共)’은 나눔에 관한 안내로 (사)행복한마을에서 진행하는 △만클릭 기부프로젝트 △일상의 깨달음을 전하는 콘텐츠 서비스 아침의 소리 △명상문화체험 명상콘서트 △오픈강좌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사장 은산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수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돼 수행 때문에 기본적인 삶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상생활의 변화로 수행하는 삶, 행복한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공공생활 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에 동참하고 참된 성장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생활 베타버전은 3월말 출시되며 5월초에 정식버전을 만날 수 있다.

은산 스님은 “행복한마을 콘텐츠뿐 아니라 세계각지에 있는 공동체 소개 및 연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채식음식도 현재 체험단을 통해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정식버전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금선암 니까야 천일독송 입재

2020년까지 4부 니까야 독송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니까야 독송 천일기도를 입재했다.〈사진〉

3월 24일 극락보전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대진 스님, 군산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 전주 보문사 원감 혜원 스님, 안준아 룸비니 산악회장, 반재상 전북불교대학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산 스님은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출가했지만 번뇌와 욕망 속에 수행자의 목표를 망각하고 헤매고 있다”며 “입재식을 통해 받은 경책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처음 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 원만회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번뇌 망상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모든 시간에 일념으로 정진해서 천일결사를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니까야 독송 천일기도는 2020년 12월 19일까지 천일간 매일 새벽과 사시, 저녁예불 등 세 번에 걸쳐 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다 니까야, 앙굿다라 니까야의 4부 니까야를 독송하는 기도를 봉행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년의 신비 ‘팔만대장경’ 속으로

해인사 4월 13~14일 대장경 기리는 정대행진

법보종찰 해인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려팔만대장경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해인법계도를 도는 정대요잡에는 수많은 대중이 함께 참여해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4월 13~14일 이틀 동안 해인사 경내에서 ‘제58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8년째 이어오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온 누리에 펼치기를 기원하는 법회이자 문화행사다.

13일은 오후 4시 식전행사인 시련행사로 시작한다. 시련행사는 해인사 입구 비석거리에서부터 불보살, 옹호신중, 역대 조상영가를 모신 가마를 들고,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로 도량으로 모시는 행렬이다. 행렬에서는 인로왕번, 오방번, 향로, 오색기불기, 태극기와 십바라밀기, 청사초롱 등을 만날 수 있다.


팔만대장경 기념행사 정대행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예불 후에는 대령관욕과 회심곡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마음치유학교장인 혜민 스님의 초청법문과 국악그룹 이상의 공연,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대장정을 알 수 있는 영상 상영 후에는 철야정진으로 산사의 밤을 밝힌다.

14일 본행사에서는 새벽예불과 아침공양 후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 괘불을 봉안하고 법보전에 봉안된 팔만대장경 조성·장경판전 건립·고려팔만대장경 수호 공덕주들을 기리는 위패를 이운한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와 천도의식 후 진행되는 팔만대장경 정대행진은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판 모형을 머리에 이고 해인법계도를 따라 도는 사람들의 행렬을 연출한다. 정대행진은 행사일 해인사를 찾는 모든 이가 참여 가능하다.

그 외 부대행사로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단청나무 컵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부대행사는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영도구불교합창제 4월 7일 영도문화회관서

따뜻한 봄, 불음(佛音)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음 세상이 펼쳐진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7일 오후 6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부산 영도에 위치한 사찰 소속 미룡사 바라밀 합창단,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이 참여한다.

합창제는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관세음보살’ ‘그 마음 그대로’ 등 찬불가 무대와 찬불동요 메들리, 자유곡 등으로 진행되며 BTN불교TV 남성중창단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은 2001년 창단됐으며 정화양로원 위문공연,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 등 교계행사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은 1990년에 창단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선법가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은 어린이 합창단이며, 합창단을 통한 어린이 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